

혼조조카마치 해설판 9 후루유키미나토(항구)와 후루유키오쿠라(창고)

현재 혼조항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일각은 에도시대 혼조조카에서 쓰던 창고인 「후루유키오쿠라(古雪御蔵)」가 있었던 부지입니다.

이 곳에 있었던 항구는 「후루유키미나토(古雪湊)」라고 칭해졌으며 일본해를 항행하는 해선들이 정박할 뿐만 아니라 고요시 강과 이모 강 등을 오가는 강배들도 이곳을 사용했습니다.

후루유키오쿠라는 혼조번 로쿠고(本莊藩六郷)씨의 관리들이 모여 영내의 쌀을 집적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메이지 4년(1871년)의 폐번까지 존속했습니다. 정문과 뒷문을 갖춘 「선착장」이 부설되고 선박 출입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루유키오쿠라 일대는 분로쿠 연간(1592년 ~ 1596년)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항구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후루유키」가 아니라 「후루키」라고 불렸습니다. 후루유키 항구 강 건너편에 있는 가메다 번령에도 이시와키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입항하는 기타마에부네를 둘러싸고 쌍방의 해상 운송선 도매상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후루유키 항구에 서예지, 밀랍, 설탕, 소금, 무명, 일본철 등을 가져오고 또 유리군의 쌀, 유채씨, 대두 등을 전국으로 운반했습니다.

이 기타마에부네로 인한 교역은 상품 이외에도 시나노노쿠니(信濃国)(현재의 나가노현) 오이와케슈쿠(追分宿)발상지인 오이와케부시(追分節)로부터 민요 「혼조오이와케」가 나왔으며 「오키니」, 「난보」와 같은 간사이 방언 등의 문화도 전해졌습니다. 또 에치젠노쿠니(越前国) 특산물인 샤쿠다니이시(笏谷石, 응회암의 일종)도 이 곳에 전해져 지금도 후루유키마치 옛 집의 현관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루유키마치에서 나카마치까지의 거리에는 기타마에부네의 상품을 취급하는 혼조번 공인의 10 채 정도의 해상 운송선 도매상이 점포를 마련해 「가이센돈야 쥬닌나카마(廻船問屋十人仲間)」라고 불렸습니다. 또 이 근처는 기타마에부네 승무원들이 드나들던 요정(料亭, 주로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음식점)이나 여관 등이 줄지어 있어 매우 번성했습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